

## 위기에 강한 한국인: 가족확장성과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의 기부 의도\*

임 정 재<sup>1)</sup> 김 재 이<sup>2)</sup> 김 세 현<sup>3)</sup> 허 태 균<sup>†</sup>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문화적 개인 특성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조를 가족 체계로 지각하는 문화적 특성인 가족확장성이 사회적 위기에 대한 기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개인 중심의 서사 형식으로 제시된 두 가지 사회적 위기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각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 그리고 기부 의도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위기 맥락 모두에서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과 높은 수준의 기부 의도가 나타났으며, 매개 분석을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 책임 지각은 가족확장성이 위기 인식을 거쳐 기부 의도로 이어지는 순차적 경로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위기 맥락 간 평균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심리적 메커니즘의 구조적 패턴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가족확장성의 역할과 영향을 조명하였다.

주요어 : 기부 의도, 가족확장성,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연구비(K2407491)에 의하여 수행됨.

1) University of Florida, Warrington college of business, 박사과정생

2) University at Buffalo, School of management, 박사과정생

3)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관 구관 316, E-mail: tkhur@korea.ac.kr



Copyright ©2026,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이는 과거부터 한반도에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는 한국인의 단결력과 저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이다. 이와 같은 대중 담론을 학술적으로 해석해 보면, 한국인은 위기 상황을 관찰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어떤 위기 상황을 관찰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누군가는 즉각적인 구조와 지원(Fischer et al., 2011)에 나서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침묵하거나 회피(Darley & Latané, 1968)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위기 대처 노력 사례로는 국권 회복을 위한 국채 보상 운동이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Lee & McNulty, 2003),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자원 봉사(Hong et al., 2014) 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기에 있어서도 위기 대상자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단결력 있는 행동을 보여왔다. 세월호 사건(송명희, 2014)이나 무안 공항 참사(천경석, 장수경, 2025)에 대한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 혹은 소수가 처한 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을 잘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도움 행동 혹은 친사회적 행동을 자신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동체 의식이나 애국심이라는 민족적 정체성과 같은 사회, 문화적 가치의 실현으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사회 가치가 변화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면서, 한국인이 과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기도 하였다(심새롬, 하현옥, 2017).

그러나 공동체 의식이 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현대사회의 한국인은 각종 사회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한국인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놓였던 시기에 다시 한번 친사회적 단결력을 보여주었다(기부문화연구소, 2021).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난 이후, 한국인은 짧은 기간에 2,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성금을 기부하였고, 이는 국내 재난 사상 최고 모금액으로 기록되었다(문일요, 2020). 개인이나 소수가 겪은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도 한국인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약 1,200억 원 이상의 국민 성금이 모금되었고, 무안 공항 참사 이후에는 사고 이후 이틀간 약 11억 원의 기부금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단지 공동체 의식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나 애국심 등의 집단 심리적 요인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사회적 위기 중,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특정 사회 구성원이나 소수의 구성원이 처한 사회적 위기이다. 이는 국가 전반의 위기로 인식되는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의 경우, 분명히 사회적 위기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사회 전반이 아닌 개인이나 소수에 국한된다. 유사하게 세월호 사건이나 무안 공항 참사도 대규모의 사상자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컸을지라도, 국가 전반의 위기로 인식되기보다는 특정 개인들이 겪은 사회적 위기에 가깝다. 사회 구성원 중 내가

아닌 누군가가 겪는 위기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해당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예. 봉사 활동, 모금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기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 한국 사회의 기부 현상과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

기부 행동은 금전적 기부 행동과 비금전적 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선 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부 행동은 타인이나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인 친사회적 행동의 대표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예시로 주목받고 있다. 보통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조화와 집단 내 결속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Batson & Shaw, 1991; Penner et al., 2005), 외적 보상이나 외부적 강요 없이 타인을 도우려는 순수한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회 규범을 준수하려는 행동이나 전략적 이타성과는 구분된다(Andreoni, 1990; Eisenberg & Miller, 1987). 이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정의와 한국 사회에서 기부 행동에 대한 외적 동기 수준이 낮다는 점(서희열, 2018; 정유진, 2015)을 고려했을 때, 기부 행동은 한국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심리적 요인으로 주목하는 것은 개인 내적 특성(Bryan et al., 2000)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성격적 특성(Graziano et al., 2007; Habashi

et al., 2016)이나 정체성(Reed & Aquino, 2003; White et al., 2017)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성격 5 요인 중 우호성은 개인의 도움 행동 혹은 지속적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성격 특성이다(Graziano et al., 2007; Habashi et al., 2016). 또한 자아 개념 내에 도덕적 정체성(Reed & Aquino, 2003)을 핵심으로 두고 있는 개인은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의향이나 평가가 긍정적일 수 있다. 실제로 도덕적 정체성을 활성화했을 때, 기부 행동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나아가 기부 실천 의도도 증가하였다(Reed et al., 2007). 또한 친사회적 태도에 대한 구체적 역할 정체성(specific role identity)를 가진 개인은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예. 금전 기부, 자원봉사, 헌혈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역할 정체성의 영향력은 개인의 일반적 정체성이나 성격 특성보다 더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White et al., 2017). 이처럼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성격 특성, 자기개념,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기부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개인 내적 특성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 현상으로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문화적 요인(Kemmelmeier et al., 2006; Moorman & Blakely, 1995; Siemens et al., 2020)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비교했을 때, 집단주의 문화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rman & Blakely, 1995). Torelli와 Shavitt(2010)은 문화에 따른 권력(social power)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권력을 개인적 이득 혹은 지위 향상과 연관짓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권력을 타인을 돕거나 사회적 책임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자아실현이나 지위 과시보다는 배려와 봉사와 같은 공동체적 동기에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 규범의 강도와 규범 위반에 대한 관용 수준(tightness-looseness; Gelfand et al., 2011)이 있다. 사회적 기대에 대한 민감도, 행동의 규범화 수준을 나타내는 규범 위반 관용 수준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iemens 등(2020)은 규범의 강도가 높은 문화권(tightness)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강하게 내면화된 사회 규범에 기반하여 수행되므로, 행동의 공개성이나 관찰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적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규범 강도가 높은 문화에서는 타인의 기대나 규범에 순응하려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친사회적 행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화적 요인은 사회 현상으로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지만, 개인차 요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배경에 따른 개인차 특성인 문화적 개인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문화 차이는 주로 문화적 자기관과 같은 문화적 개인 특성으로 설명된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는 독립적 문화 자기관이 두드러지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두드러진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적 개인 특성은 문화적 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인차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인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김유경, 박종철, 2016; Gelfand et al., 2011; Hofstede, 2001)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개인 특성이다.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높으면 타인을 위한 행동을 사회적 규범으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나아가 타인의 복지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나타낸다(Hofstede, 2001; Kimmelmeier et al., 2006; Moorman & Blakely, 1995).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낮아졌거나(Kwon, 2011),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문화가 변화하는 양상(최혜원, 2023; Cho et al., 2010)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전통적인 문화적 요인에만 국한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화적 개인 특성이 아닌,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화적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기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문화적 개인 특성과 기부의도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매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 가족확장성과 위기 인식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기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개인 특성은 가족확장성이다. 가족확장성은 개인이 국가와 사회 구조를 가족의 구조와 관계를 바탕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개인 특성으로 정의된다(허태균 등, 2012; 허태균, 2015). 가족확장성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화적 개인 특성으로 다양한 사회 장면에서 관찰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혈연관계로 쉽게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이 아닌 남에게 가족이나 친척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즉, 가족확장성은 국가나 사회 구조 및 관계를 하나의 확장된 가족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문화적 개인 특성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다양한 사회적 태도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가족확장성은 서구 사회에서 논의되는 전통적 가족주의(familism)와는 구별된다. 가족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서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단결과 희생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이다 (Rodriguez et al., 2007). Benavidas 등(2016)은 가족확장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고, 각기 서로 다른 문화권(프랑스, 칠레, 한국)의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권의 프랑스와 집단주의의 한국과 칠레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통적 가족주의 문항과 가족확장성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가족주의 문항에서는 세 국가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족확장성 문항에서는 한국이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가족확장성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한국인이 두드러지게 갖는 문화적 개인 특성임을 시사한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한국, 칠레)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가족확장성 간의 정적 상관관이 유의하였지만, 개인주의 문화권(프랑스)에서는 두 변인 간 상관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개인주의와 달리 집단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에 대한 애착과 중요

성을 강조하는 개인일수록 국가와 사회를 가족의 구조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에 대한 애착과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임을 알 수 있다. Benavidas 등(2016)의 연구 결과는 가족확장성이 가족주의와 구별되는 별개의 문화적 개인 특성임을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인이 사회적 관계 구조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족확장성은 사회 구성원을 제도적 타자가 아닌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관계적 주체로 인식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허태균 등, 2012).

실제로, 가족확장성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허용회 등, 2017). 구체적으로 가족확장성이 높은 개인은 사회 지도층과 정부에 대해 자기 부모 수준의 도덕적 기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확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정치인이나 사법부와 같은 사회 제도적 주체를 부모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성과 관계적 신뢰를 기대하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으로 이어져 사회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낮추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보다 저신뢰 사회로 간주되어 왔다(이숙중, 2017; OECD, 2024; Jung & Sung, 2012; Kim, 2017). 구체적으로 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유사한 문화권인 일본에 비해 낮고(이숙중, 2017),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OECD, 2024). 그러나 허용회 등(2017)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보면, 한국 사회의 저신뢰 현상은 문화적 개인 특성인 가족확장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신뢰 기대의 역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확장성은 자신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기를 인식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ntman(1993)은 동일한 사회적 위기라고 할지라도 제시되는 방식에 따라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위기가 개인 중심의 서사(episodic)로 제시될 때는 위기 해결 주체를 위기를 겪은 개인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구조 혹은 맥락 중심의 서사(thematic)로 주어질 때는 위기 해결 주체가 사회 및 정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Iyengar, 1990). 그러나 Temmann 등(2021)은 위기 서사 형식(episodic vs. thematic)과 문제 해결 주체(개인 vs. 사회 및 정부)의 관계가 단순하게 등치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서사 형식이 아닌, 개개인이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범주화하는지(예, 개인 수준의 위기 vs. 국가 수준의 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확장성 특성이 높은 개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회 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기를 보더라도 그 위기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의미화 혹은 범주화하며, 나아가 해당 위기에 대한 기부 의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의 서사로 제시되는 사회적 위기(개인과 관계없는 어떤 한 사회 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가족확장성 특성이 높을수록 해당 사회적 위기를 더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할 것이며, 나아가 기부 의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겪

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기부 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겪는 사회적 위기 사건을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할 것이다.

**가설 3:** 가족확장성과 기부 의도 간의 관계를 국가 수준 위기 인식 수준이 매개할 것이다.

### 기부 행동의 심리적 메커니즘: 개인 책임 지각 및 국가 책임 지각

가족확장성 특성에 의해 개인 중심의 서사로 제시된 사회적 위기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부 행동은 단순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의 결과라기보다, 위기 해결의 책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책임 지각은 기부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제안되어왔다(Erlandsson et al., 2015, 2017). 책임 지각은 공감과 같은 정서적 메커니즘(Morgan & Townsend, 2022; Ye et al., 2015)과는 구분되는 인지적, 규범적 판단으로서 기부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Winterich & Zhang, 2014). 또한 책임 지각은 개인이 수행하는 도움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반영하고 있다. 도움 행동에서의 도덕적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하는지에 따라 도움 행동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Baron & Miller, 2000)을 미뤄봤을 때, 기부 행동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역할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써 책임 지각의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 지각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개인 책임 지각이다. 이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Nijs 등(2024)은 우리의 것(공동 소유물)이라는 지각이 우리(집단 구성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 공유 대상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책무적 행동(stewardship) 의도를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적 위기가 내집단의 것으로 범주화되어, 위기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이 활성화되면, 개인의 기부 의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Erlandsson et al., 2015, 2017).

두 번째는 국가 책임 지각이다. 이는 사회적 위기에 국가 혹은 정부의 도덕적 의무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기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한다면, 그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각하는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 책임과 함께 활성화되어 기부 의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사회적 위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제도나 사회에 위임함으로써 개인 기부 의도를 약화하거나(방관자 효과; Fisher et al., 2011), 개인의 직접적인 노력보다는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태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Iyengar, 1990; Temmann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주어진 사회적 위기에 대한 책임 지각을 개인 책임(내가 도와야 한다)과 국가 책임(국가/정부가 도와야 한다)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두 가지 책임 지각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한 이론적, 개념적 논리 구조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 경로는 개인 책임 지각의 매개 경로이며, 국가 책임 지각의 매개 경로는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가설 4:**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개인 책임 지각 수준이 높을 것이다.

**가설 5:** 가족확장성으로 활성화된 국가적 위기 인식과 기부 의도의 관계를 개인 책임 지각 수준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5-1:**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 국가적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의 간접 경로가 유의할 것이다.

**RQ:** 가족확장성 수준에 따라 개인이 겪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 지각의 수준은 어떠하며, 개인 기부 의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할까?

## 연구 방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업체(마크로밀 엠브레인)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G\*power 분석(효과 크기 = .20, 검정력 = .80)을 수행한 결과, 8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Faul et al., 2009). 이와 더불어 온라인 조사의 불성실 응답자 비율에 대한 선행 연구(박원우 등, 2020)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응답 중 주의 점검 문항에서 탈락하거나 단일 응답 값만을 표시하는 등의 불성실 응답자(14명; 탈락률 14.0%) 자료를 제외하고, 86명의 참여자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42세였으며( $SD=11.10$ ,  $Range = 20, 69$ ), 남성 참여자의 비율은 48.8 퍼센트였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조사 업체의 공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고려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되었다(KUIRB-2023-0330-01). 참여자는 온라인 조사 업체가 제공한 링크에 접속한 뒤, 참여자는 연구에 대한 안내를 서면으로 받고, 참여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는 본격적인 설문 조사에 임하였다. 먼저 참여자는 가족확장성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차 변인에 응답하였다. 그다음, 참여자들은 무작위 순서로 혈액 수급 위기와 출판 및 문화 산업 위기에 관한 가상의 기사에 노출되었다. 하나의 기사를 읽은 뒤에는 기사에 서술된 위기를 얼마나 국가 수준의 위기라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위기 인식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 뒤, 해당 위기를 겪는 기부 대상에 대한 개인 책임 및 국가 책임을 지각하는 수준을 묻는 문항과 기부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차례대로 응답하였다. 첫 번째 기사에 할당된 문항에 모두 응답하고 나면, 두 번째 기사가 제시되었고 동일한 구성의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끝으로 조사를 종료하였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는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연구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 측정 도구

### 가족확장성

가족확장성은 사회 조직이나 국가를 가족처럼 인식하는 심리적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Benavidas 등(2016)에서 제안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가족확장성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허용희 등, 2017). 구체적인 문항은 “가장 이상적인 사회 조직

(동호회, 회사 등)의 형태는 가족의 형태와 유사해야 한다”, “국가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국민을 돌봐야 한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느낌이 드는 지도자가 가장 좋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7점: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응답의 내적 일관성( $\alpha = .86$ )은 양호한 수준이었고, 모든 응답을 평균 내어 가족확장성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가족확장성 특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 사회적 위기 노출 및 위기 인식

참여자들은 두 가지 위기 맥락에 관한 가상의 신문 기사에 노출되었다. 신문 기사는 각각의 사회적 위기를 개인 중심의 서사(episodic)로 제시하였다. 즉, 두 가지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사회 구성원의 서사를 중심으로 묘사되었다. 첫 번째는 혈액 수급 위기로 병원에 입원 중인 어떤 환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부족한 혈액 수급으로 인한 수혈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출판 및 문화산업 위기로 출판 산업의 축소로 인해 서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서점 점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묘사되었다. 두 가지 자극물은 위기 맥락만 다를 뿐, 사용된 단어의 난이도나 전체 분량은 유사하였다. 두 개의 신문 기사는 참여자들에게 무작위 순서로 할당되었으며, 참여자들은 각 신문 기사를 읽은 뒤에 일련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첫 번째 신문 기사에 대한 문항에 모두 응답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신문 기사가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주어진 가상의 신문 기사를 본 후, 가장 먼저 제시된 위기 사건을 어떤 수준

의 위기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 속 위기를 얼마나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단일 문항을 7점 척도(1점: 기사 속 위기는 개인적 위기이다. 7점: 기사 속 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다)로 응답하였다. 주어진 사회적 위기 상황이 국가 수준의 위기인지를 지각하는 것은 단일 차원으로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노출된 위기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범주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은 위기 상황에 대해 참여자 스스로가 느끼는 도덕적 책임 수준(개인 책임 지각)과 참여자가 지각하는 국가의 도덕적 책임 수준(국가 책임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OO은 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OO는 이 문제에 대해 OO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서술된 문장에서 주어(나(개인 책임 지각) 혹은 국가(국가 책임 지각))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측정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높은 수준이었고(개인 책임 지각:  $\alpha_{\text{혈액위기}} = .91$ ,  $\alpha_{\text{출판위기}} = .95$ , 국가 책임 지각:  $\alpha_{\text{혈액위기}} = .96$ ,  $\alpha_{\text{출판위기}} = .97$ ), 문항을 위기 맥락별로 평균 내어 각각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 변수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점수는 높을수록 각 주체의 책임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 기부 의도

참여자의 기부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2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나는 기부 요청을

받는다면 기사 속 기부 대상자를 위해 기부할 것이다”와 “나는 자발적으로 기사 속 기부 대상자를 위해 기부할 것이다”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발적 행동 의도와 요청에 따른 행동 의도를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했으나, 두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r_{\text{혈액위기}} = .94$ ,  $r_{\text{출판위기}} = .94$ ,  $p < .001$ ), 두 문항을 평균 내어 단일 변수로서의 기부 의도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기부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구 결과

####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기사 조건 별 차이를 반복 측정  $t$ -test로 확인하였다(표 1). 그 결과, 제시한 기사(혈액 수급 위기, 출판 및 문화 산업 위기)에 따라 기부 의도,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혈액 수급 위기 기사에서 측정된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 기부 의도가 출판 및 문화 산업 위기 기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위기 맥락에 따라 참여자의 반응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상관 분석(표 1) 결과, 두 조건 모두에서 가족확장성은 모든 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개인의 기부 의도는 성별(혈액위기:  $r = 0.46$ ,  $p = .648$ , 출판위기:  $r = -0.08$ ,  $p = .940$ )이나 연령(혈액위기:  $r = .12$ ,  $p = .285$ , 출판위기:  $r = -.02$ ,  $p = .843$ )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

표 1. 주요 변인 기술 통계, 차이 검정 및 상관 분석

	혈액위기	출판위기	t-test	zero-order correlation				
	M(SD)	M(SD)		1	2	3	4	5
1. 가족확장성	4.12(1.17)		-	-	.25*	.26*	.23*	.40***
2. 위기 인식	5.44(1.41)	4.13(1.56)	7.53***	.24*	-	.55***	.60***	.55***
3. 개인 책임 지각	4.90(1.18)	3.50(1.45)	8.91***	.29**	.44***	-	.73***	.74***
4. 국가 책임 지각	5.80(1.03)	4.51(1.61)	8.02***	.36***	.60***	.66***	-	.55***
5. 기부 의도	4.88(1.35)	3.23(1.48)	10.04***	.24*	.36***	.61***	.42***	-

\*  $p < .05$ , \*\*  $p < .01$ , \*\*\*  $p < .001$

주1. 위기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는 정도임.

주2. 상관표의 하단이 혈액 위기 조건의 결과이며, 상단은 출판 위기 조건의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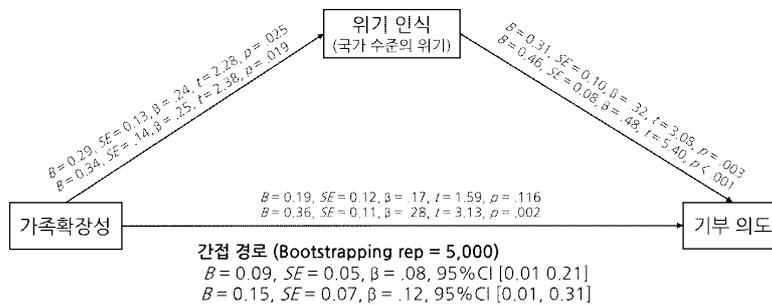
다. 주요 분석은 위기 맥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추가로 위기 맥락 조건을 집단 내 변인으로 투입하는 혼합선형모형을 분석하였다.

### 기부 의도와 위기 인식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역할

기부 의도와 위기 인식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인(가설 1, 2)하고, 기부 의도와 가족확장성의 관계에 대한 위기 인식의 매개효과(가설 3)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1). 간접 경로의 유의

성을 확인하기 이전에 매개 모형을 단계별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우선, Jamovi(ver. 2.3.21)를 활용하여 기부 의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가족확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노출된 위기 상황에 대한 기부 의도가 높았다(혈액위기:  $B = 0.28$ ,  $SE = 0.12$ ,  $\beta = .24$ ,  $t = 2.29$ ,  $p = .025$ , 출판위기:  $B = 0.51$ ,  $SE = .13$ ,  $\beta = .40$ ,  $t = 4.02$ ,  $p < .001$ ). 즉, 두 가지 위기 맥락에서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기부 의도가 높았다(가설 1 채택).

그 뒤, 위기 인식 변수를 종속변수로, 가족



주. 그림 내 결과에서 뿔줄은 혈액 위기, 아랫줄은 출판 위기 맥락임

그림 1. 기부 의도와 가족확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위기 인식의 매개효과

확장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기 인식은 점수가 클수록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 결과, 위기 맥락 공통으로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노출된 위기 상황을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였다(그림 1 내 가족확장성 → 국가 수준의 위기 인식 경로 결과; 가설 2 채택).

끝으로, 기부 의도에 대해 가족확장성과 위기 인식을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기부 의도에 대한 위기 인식의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며(그림 1 내 위기 인식 → 기부 의도 경로), 가족확장성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그림 1 내 가족확장성 → 기부 의도 경로).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Jamovi(ver. 2.3.21) 내 GLM mediation model을 활용하여,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분석을 포함해 본 논문 내 모든 간접 경로의 유의성은 비교적 적은 표본에서도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bias-corrected bootstrapping 방법(Preacher & Hayes, 2008)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위기 맥락에서 가족확장성 → 국가 수준의 위기 인식 → 기부 의도의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내 간접 경로 검증 결과; 가설 3 채택).

####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의 매개 효과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기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고, 나아가 기부 의도가 증가하는 경로를 책임 지각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을 매개변수로 포함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가족확장성을 주요 독립변수로 두고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을 각각 종속변수로 두는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은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성별:  $p_s \geq .057$ , 연령:  $p_s \geq .136$ ),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개인 책임 지각(혈액 위기;  $B = 0.29$ ,  $SE = 0.11$ ,  $\beta = .29$ ,  $t = 2.77$ ,  $p = .007$ , 출판위기;  $B = 0.32$ ,  $SE = 0.13$ ,  $\beta = .26$ ,  $t = 2.42$ ,  $p = .018$ ) 수준이 높았다(가설 4 채택). 또한 국가 책임 지각(혈액;  $B = 0.32$ ,  $SE = 0.09$ ,  $\beta = .36$ ,  $t = 3.51$ ,  $p < .001$ , 출판;  $B = 0.31$ ,  $SE = 0.15$ ,  $\beta = .23$ ,  $t = 2.14$ ,  $p = .035$ )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정적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그 뒤, 가족확장성과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의 관계를 위기 인식이 매개하는지와 나아가 가족확장성, 위기 인식, 개인 및 국가 책임 지각의 경로를 통해 기부 의도를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표 2 내 M2-1, M2-2에 대한 결과). 우선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영향력은 위기 인식 변수를 투입했을 때, 약화되거나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고, 위기 인식의 영향력은 유의하였다. 즉, 가족확장성과 개인 및 국가 책임 지각 간의 정적 관계는 위기 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 의도에 대해 가족확장성, 위기 인식, 개인 및 국가 책임 지각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한 최종 회귀 모델(표 2 내 DV에 대한 결과)에서는 맥락 공통으로 기부 의도에 대한 개인 책임 지각의 정적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반면, 국가 책임 지각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개인 책임 지각은 가족확장

표 2.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영향력에 대한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과 국가 책임 지각의 매개효과

맥락: 혈액 위기	M2-1: 개인 책임 지각				M2-2: 국가 책임 지각				DV: 기부 의도			
	<i>B</i>	<i>SE</i>	$\beta$	<i>p</i>	<i>B</i>	<i>SE</i>	$\beta$	<i>p</i>	<i>B</i>	<i>SE</i>	$\beta$	<i>p</i>
IV: 가족확장성	0.20	0.10	.19	.054	0.20	0.07	.23	.011	0.08	0.11	.07	.482
M1: 위기 인식	<b>0.33</b>	<b>0.08</b>	<b>.40</b>	<b>&lt;.001</b>	<b>0.40</b>	<b>0.06</b>	<b>.54</b>	<b>&lt;.001</b>	0.12	0.11	.12	.274
M2-1: 개인 책임 지각	-	-	-	-	-	-	-	-	<b>0.65</b>	<b>0.13</b>	<b>.56</b>	<b>&lt;.001</b>
M2-2: 국가 책임 지각	-	-	-	-	-	-	-	-	-0.06	0.11	-.04	.747

맥락: 출판 위기	M2-1: 개인 책임 지각				M2-2: 국가 책임 지각				DV: 기부 의도			
	<i>B</i>	<i>SE</i>	$\beta$	<i>p</i>	<i>B</i>	<i>SE</i>	$\beta$	<i>p</i>	<i>B</i>	<i>SE</i>	$\beta$	<i>p</i>
IV: 가족확장성	0.16	0.12	.13	.188	0.11	0.12	.08	.364	0.26	0.09	.21	.005
M1: 위기 인식	<b>0.48</b>	<b>0.09</b>	<b>.52</b>	<b>&lt;.001</b>	<b>0.59</b>	<b>0.09</b>	<b>.58</b>	<b>&lt;.001</b>	0.19	0.08	.20	.025
M2-1: 개인 책임 지각	-	-	-	-	-	-	-	-	<b>0.65</b>	<b>0.11</b>	<b>.63</b>	<b>&lt;.001</b>
M2-2: 국가 책임 지각	-	-	-	-	-	-	-	-	-0.08	0.10	-.09	.431

주. 위기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냄.

성으로 인해 노출된 사회적 위기 상황을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과 기부 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가설 5 채택), 국가 책임 지각은 그 경로를 설명하지 못했다. 가족확장성, 위기 인식, 개인 및 국가 책임 지각, 기부 의도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돌린 결과, 두 맥락 모두에서 개인 책임 지각

의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가설 6 채택). 반면, 국가 책임 지각의 간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가지 위기 맥락(혈액위기 vs. 출판위기)은 집단 내 반복 측정이 수행되었으나, 맥락 간 주요 변수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표 1 내 대응 표본 t-test 결과). 따라서 각 맥락에 따른 심리적 의미가

표 3. 기부 의도에 대한 직렬 매개 경로 효과 검정(Bootstrapping rep = 5,000)

위기 맥락	간접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혈액 위기	가족확장성 → 위기 인식 → 개인 책임 지각 → 기부 의도	<b>0.06</b>	<b>0.03</b>	<b>0.01</b>	<b>0.14</b>
출판 위기	가족확장성 → 위기 인식 → 국가 책임 지각 → 기부 의도	-0.00	0.02	-0.07	0.04
혈액 위기	가족확장성 → 위기 인식 → 개인 책임 지각 → 기부 의도	<b>0.11</b>	<b>0.05</b>	<b>0.01</b>	<b>0.22</b>
출판 위기	가족확장성 → 위기 인식 → 국가 책임 지각 → 기부 의도	-0.02	0.02	-0.06	0.02

주. 위기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맥락 고유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각 맥락에서의 경로 구조가 독립적으로 재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분석을 맥락별로 따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영향력과 설명 변수의 역할과 영향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독립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구조적 패턴의 일관성을 강건하게 살펴보기 위해 혼합선형모델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반복 측정된 데이터의 행렬을 변환하여, 위기 맥락 변수(1: 혈액 위기, 2: 출판위기)를 생성한 뒤, 맥락 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ID 변수를 군집 변수로 둔 뒤, 무선 효과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본 분석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위기 맥락에서의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영향력과 그에 대한 매개 경로의 유의성은 맥락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sup>1)</sup>.

1) 우선,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총효과 분석에서 가족확장성과 맥락 변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23, SE = 0.14, t = 1.62, p = .110$ ). 또한 기부 의도에 대해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최종 모델에서는 매개변수와 맥락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ps \geq .135$ ),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직접 효과의 맥락별 차이는 경계선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19, SE = 0.10, t = 1.86, p = .066$ ). 맥락별로 나누어,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직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 출판위기 맥락에서는 가족확장성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B = 0.25, SE = 0.10, t = 2.52, p = .013$ ), 혈액위기 맥락에서는 가족확장성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 = 0.05, SE = 0.10, t = 0.56, p = .580$ ).

## 논 의

본 연구는 다른 사회 구성원이 겪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 개인 특성의 영향력과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문화적 개인 특성인 가족확장성을 측정된 뒤, 어떤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서술된 가상의 사회적 위기 상황(혈액 수급 위기, 출판 및 문화 산업 위기)을 제시하고, 위기 인식, 개인 책임 지각, 국가 책임 지각 그리고 기부 의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기부 의도가 높았으며(가설 1), 이는 개인 중심 서사로 노출된 사회적 위기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가설 2, 3). 나아가, 해당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개인 책임을 높게 지각함(가설 4)으로써 기부 의도가 높아지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였다(가설 5, 6). 즉, 한국인의 문화적 개인 특성인 가족확장성은 사회적 위기가 개인 중심의 서사로 제시되더라도, 이를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높게 지각하게 만들고, 나아가 기부 의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 책임 지각 수준도 높아졌지만, 기부 의도에 대한 국가 책임 지각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본 연구 결과는 선행 논의(허용희 등, 2017; 허태균 등, 2012; Benavidas et al., 2016)와 더불어 가족확장성이 사회 구조를 인식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적 개인 특성임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확장성은

사회적 위기가 개인 중심의 서사로 제시되었을 때도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게끔 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 제시 방식(개인 중심 서사 vs. 구조/맥락 중심 서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Temmann 등(202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기가 개인 중심의 서사로 제시되었음에도, 가족확장성 수준에 따라 다른 수준(개인 수준 vs. 국가 수준)의 위기로 인식하였다. 즉, 문화적 개인 특성의 수준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다른 심리적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개인 특성은 인지, 정서, 동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Markus & Kitayama, 1991), 분석적-총체적 사고방식(Choi et al., 2007)은 심리적 처리 방식에서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족확장성의 역할과 영향력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특히,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이 단지 위기 상황이 가진 특성(Habashi et al., 2016)이나 개인의 자아 특성(White et al., 2017)때문만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적 개인 특성 수준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기부 의도 수준이 달랐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 개인 특성의 영향력은 선행 연구에서도 주목해 왔다. 예를 들어, Duclos와 Barasch(2014)는 문화적 자기관(independent self vs. interdependent self)과 기부 행동의 관계가 수혜자를 내집단으로 지각하는지, 외집단으로 지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기부자는 수혜자가 내집단인 경우에는 기부 의도가 높았지만, 수혜자가 외집단인 경우에는 기부 의도가 낮았다.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기부자는 수혜자가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에 따라 행동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이 다르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이 단순한 개인차 혹은 상황적 요인에 의한 자동적 결과물이 아니라, 문화적 개인 특성과 인지적 범주화 과정의 복합적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족확장성도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문화적 개인 특성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거리의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역할과 영향력을 보다 이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해석 수준 이론(Trope & Liberman, 2010)에 따르면, 기부 수혜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혜자가 겪는 위기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과 기부 의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에 대해 책임감(Baron & Miller, 2000)과 관련 행동이 강화될 수 있고(Erlandsson et al., 2015), 대상과의 거리가 멀면 행동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Kim et al., 2020). 실제로 선행 연

구에서는 기부 수혜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부 행동과 책임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안정용, 성용준, 2019; Kogut et al., 2018; Strombach et al., 2014), 이러한 심리적 거리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문화 보편적이다(Ishii & Eisen, 2018). Wong과 Bagozzi(2005)는 심리적 거리가 수혜자에 대한 감정 강도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일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기부자가 수혜자를 얼마나 가깝게 지각하는지가 기부 행동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기부자의 감정 강도를 결정짓는데 문화적 자기개념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유교적 효(孝)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권에서는 가족이 확장된 자기로 내면화되며, 그 결과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감정 반응은 마치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본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확장성은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가족의 메커니즘으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불특정 사회 구성원의 위기가 마치 자기 가족 혹은 자신을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위기로 지각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가족확장성은 보다 다양하고 넓은 수준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그들이 겪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적 특성으로 보인다.

이처럼 심리적 거리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은 문화 보편적(Ishii & Eisen, 2018)이라고 할지라도, 전통적인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논리(Buchan et al., 2006)에 의거한 비교 문화 연구는 두 요인의 관계 강도에 대한 비일관성을 보여준다. 먼저,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과 집단주의 문화권인 중국을 비교한 Strombach 등(2014)은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친사회적 행

동 경향이 낮아지는 패턴은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중국이 독일에 비해 심리적 거리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감소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독일인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한 반면, 심리적 거리가 먼 대상에 대해서는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더 관대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Ito et al., 2011)에서는 집단주의의 일본인이 개인주의의 미국인에 비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가파르게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처럼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중국과 일본이 동일한 개인주의 문화권과의 비교에서 반대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은 심리적 거리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개인주의-집단주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집단 단결(Brewer & Chen, 2007; Triandis, 2001)과 내집단 조화 추구(Hui & Triandis, 1986; Markus & Kitayama, 1991)를 강조하고, 내-외집단의 구분을 명확(Rhee et al., 1996; Triandis et al., 1988)하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심리적 거리가 다소 멀어 내집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중국인의 관대함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단순히 내집단-외집단에 따른 단결 및 조화를 설명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논리보다는 사회적 대상을 '자기'와 얼마나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거리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비일관적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기는 참여자 개인과는 무관한 어떤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참여자는 위기를 경험하는 구성원에 대해 그다지 가깝지도 않은 심리

적 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확장성 수준에 따라 위기에 대한 참여자가 느끼는 개인 책임 정도와 기부 의도 수준이 달랐다. 이는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위기를 겪는 구성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위기를 겪는 사회 구성원을 마치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일부처럼 느끼는 것이다. 즉, 가족확장성은 사회적 구조와 관계를 가족의 구조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위기를 내집단의 문제로 지각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친사회적 행동 의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선행 연구를 해석해 보면,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두 국가의 연구 결과가 서로 반대인 이유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두 국가는 유사한 문화권으로 묶이지만,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가족확장성의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족확장성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집단주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개인과 집단 내 구성원과의 일대일 관계를 지각하고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관계주의적 문화권의 특성이라고 여겨진다(허태균 등, 2012; 허태균, 2015). 실제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가족확장성의 문화적 특성이 서로 다른 수준이라면 후속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를 단일한 문화권(집단주의)으로 묶기보다는 관계주의라는 새로운 문화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에 따르면,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노출된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게 지각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지각은 개인의 기부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나아가 가족확장성 → 위기 지각 → 국가 책임 지각 → 기부 의도의 간접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어떤 개인이 겪는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확장성이 높은 개인이 그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하게 요구하지만, 개인의 기부 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기(예. 세월호 사고, 무안 공항 참사, 이태원 참사 등)가 발생했을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에 나서지만,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행동을 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행동이 동시에 나타난다(김가운, 김채운, 2024; 김남일, 2018; 김진오, 2025). 심지어, 사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 위기(예.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문화일보, 2025). 이러한 현상은 어떤 사회적 위기를 관찰했을 때,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가족확장성)에 따라 그 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와 정부에 대한 비현실적인 도덕성 기대에 따른 저신뢰 현상(허용회 등, 2017)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회적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가 책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의 낮은 개인 기부 문화는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

진다. 실제로 2022년 세계 기부지수에서 한국의 개인 기부 순위는 조사국 119개국 중 88위였으며, 2021년에는 110위에 머물렀고(김아람, 2023), 이는 국가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임이 틀림없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낮은 개인 기부 문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타주의 부족, 기부 유인 정책 부족(예. 세금 혜택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 한 비영리단체의 조사(장윤주 등, 2024)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의 주요한 개인 기부 동기는 행복감이나 세금 혜택이 아닌 사회적 책임감이었으며, 기부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경제력 부족과 기부처 불신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개인 기부 의도의 직접적인 동기로서 개인 책임 지각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의 낮은 수준과 더불어서 기부 행동에서의 개인 책임 지각의 중요성, 가족확장성 특성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부 문화에 대한 미래 한국 사회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주된 이유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1인 가구의 증가, 결혼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최혜원, 2023)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다. 즉, 사회 환경의 변화는 곧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Wang, 2024)을 고려했을 때, 가족 구성과 가치의 변화는 한국인이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틀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위기에 대한 개인 책임 지각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친사회적 행동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가치 속에서 친사회적 동기를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전통적 가족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족확장성을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확장성 인식을 조작하여 가족확장성을 측정하는 보완적 접근이 향후 필요하다. 실제로 선행 연구(허용희 등, 2017)에서는 가족확장성을 사회적 관계와 구조에 대한 글쓰기 작업을 통해 조작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부 의도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G\*power 분석을 통해 산출한 최소 표본 수( $n = 80$ ; 효과 크기 = .20, 검정력 = .80)를 충족하는 표본( $n = 86$ )으로 결과를 도출했지만, 중다회귀분석이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다소 적은 표본 크기로 보인다. 물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Bias-corrected bootstrapping 기법(Preacher & Hayes, 2008)을 활용했지만, 추후에 대규모 표본을 통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 문화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확장성은 다른 문화적 특성과 같이 한국 문화에서 두드러지는 문화적 특성일 뿐,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가진 문화적 특성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확장성이 위기 상황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책임 지각을 중심으로 기부 의도에 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지만, 가족확장성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Hou et al., 2023)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감(Dickert et al., 2011; Lee et al., 2014)이나 존재적 죄책감(existential guilt; Urbonavicius et al., 2019)은 기부 및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감정적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반응에도 가족확장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족확장성의 정서적 메커니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위기에 대해 가족확장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기부 의도가 높으며, 이것이 위기에 대한 개인 책임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의 단결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적 개인 특성의 역할과 기능을 조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예. 김세현, 허태균, 2023)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기부문화연구소 (2021). **코로나19와 기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요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3255/>에서 2025. 12. 29. 확인함
- 김가운, 김채운 (2024. 10. 01.)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법원,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규정.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43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430.html)에서 2025. 12. 29. 확인함
- 김남일 (2018. 07. 19.) 세월호 구조 실패가 왜 국가의 책임이 아니란 말인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03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039.html)에서 2025. 12. 29. 확인함
- 김세현, 허태균 (2023). 욕구-현실 충돌 상황에서의 주체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617-636.
- 김아람 (2023. 01. 18.) 한국 기부문화 119개국 중 88위...기부 참여율도 10년 간 하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8071200003>에서 2025. 12. 29. 확인함
- 김유경, 박종철. (2016).기부문화 확산: 기부자의 자아해석 수준과 수혜자의 실체성 지각의 효과: 기부자의 자아해석 수준과 수혜자의 실체성 지각의 효과. **문화산업연구**, 16(4), 29-38.
- 김진오 (2025. 12. 29.) 이대통령, 무안공항 참사 1주기 “국가 책무 다하지 못했다” 사죄.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255>에서 2025. 12. 29. 확인함
- 문일요 (2020. 03. 24.) ‘역대 최고’ 국민 성금 어떻게 배분되나?: 코로나 19 기부금 흐름 분석.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387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3879.html)에서 2025. 12. 29. 확인함
- 문화일보 (2025. 05. 20.) 국가 사이버전쟁 의심되는 SKT 해킹 사태와 정부 책임[사설].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506717>에서 2025. 12. 29. 확인함
-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 서희열 (2018. 11. 16.) 자선적 기부활동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만들자. 복지타임즈.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2>에서 2025. 12. 30. 확인함
- 송명희 (2014. 07. 26.) 세월호 성금 1,200억 원 넘어... 사용 어떻게?.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900591>에서 2025. 12. 29. 확인함
- 심새롬, 하현옥 (2017. 12. 05.) “금 모으기 351만 동참, 지금은 보기 힘든 공동체 의식의 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75319>에서 2025. 12. 29. 확인함
- 안정용, 성용준 (2019). 내/외집단 기부 수혜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기부 캠페인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 기부자의 자기해석 성향과 광고 메시지 유형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20(4), 423-444.
- 이숙중 (2017).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관신뢰와 민주주의 인식. *일본공간*, 22, 95-131.
- 장윤주, 이영주, 신성규, 정민정 (2024). 2024 데이터로 보는 국내 기부 규모 변화. 제 24회 기부문화심포지움 기빙코리아 2024 <소통으로 여는 기부의 길: 함께 성장하다>.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wp-content/uploads/20241104\\_004310.pdf](https://research.beautifulfund.org/wp-content/uploads/20241104_004310.pdf)에서 2025. 12. 29. 확인함
- 정유진 (2015. 02. 10.) 한국의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다. 더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8571>에서 2025. 12. 30. 확인함
- 천경석, 장수경 (2025. 01. 03.) “제주항공 참사에 써달라”...무안에 고향사랑기부 이어져.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182.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182.html)에서 2025. 12. 29. 확인함
- 최혜원 (2023). 한국은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 대중가요 가사, 아기 이름 속 개인주의 변화 추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3), 327-351.
- 허용희, 박선웅, 허태균 (2017). 저신뢰 사회를 만드는 고신뢰 기대? 가족확장성과 신뢰 기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1), 75-96.
- 허태균 (2015). 어쩌다 한국인: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중앙북스.
- 허태균, 서신화, 김혜진, 양석주, 이종원 (2012). 한국인의 특성 연구보고서. 한국형경영연구원.
- Andreoni, J. (1990). Impure altruism and donations to public goods: A theory of warm-glow giving. *The Economic Journal*, 100(401), 464-477.
- Baron, J., & Miller, J. G. (2000). Limiting the scope of moral obligations to help: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6), 703-725.
- Batson, C. D., & Shaw, L. L. (1991). Evidence for altruism: Toward a pluralism of prosocial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2(2), 107-122.
- Brewer, M. B., & Chen, Y. R.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1), 133-151.
- Bryan, A. D., Hammer, J. C., & Fisher, J. D.

- (2000). Whose hands reach out to the homeless?: Patterns of helping among high and low communally oriented individu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5), 887-905.
- Benavidas, P., Kim, S., Adeclas, J., & Hur, T. (2016). Korean Family Expansion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Unpublished manuscript*
- Buchan, N. R., Johnson, E. J., & Croson, R. T. (2006). Let's get personal: An internation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ulture and social distance on other regarding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60*(3), 373-398.
- Cho, Y. J., Mallinckrodt, B., & Yune, S. K. (2010).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as bicultural values: South Korean undergraduates' adjustment to college. *Asian Journal of Counseling, 17*(1-2), 81-104.
- Choi, I., Koo, M., & Jong An Choi, n.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5), 691-705.
- Darley, J. M., & Latané, B. (1968).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Diffusion of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3.
- Dickert, S., Sagara, N., & Slovic, P. (2011). Affective motivations to help others: A two stage model of donation decision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4*(4), 361-376.
- Duclos, R., & Barasch, A. (2014). Prosocial behavior in inter group relations: How donor self-construal and recipient group-membership shape generos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1), 93-108.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ntman, R.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In McQuail, D. (Ed.) *McQuail's Reader in Mass Communication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pp. 390 - 397.
- Erlandsson, A., Björklund, F., & Bäckström, M. (2015). Emotional reactions, perceived impact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mediate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proportion dominance effect and in-group effect respective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7*, 1-14.
- Erlandsson, A., Björklund, F., & Bäckström, M. (2017). Choice-justifications after allocating resources in helping dilemma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2*(1), 60-80.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ischer, P., Krueger, J. I., Greitemeyer, T., Vogrincic, C., Kastenmüller, A., Frey, D., Heene, M., Wicher, M., & Kainbacher, M. (2011). The bystander-effect: a meta-analytic review on bystander intervention in dangerous and non-dangerous emergencies. *Psychological Bulletin, 137*(4), 517-537.
- Gelfand, M. J., Raver, J. L., Nishii, L., Leslie, L. M., Lun, J., Lim, B.C., Duan, L., Almaliah,

- A., Ang, S., & Arnadottir, J. (2011).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cultures: A 33-nation study. *Science*, 332(6033), 1100-1104.
- Graziano, W. G., Habashi, M. M., Sheese, B. E., & Tobin, R. M. (2007). Agreeableness, empathy, and helping: A person×situation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4), 583-599.
- Habashi, M. M., Graziano, W. G., & Hoover, A. E. (2016). Searching for the prosocial personality: A big five approach to linking personality and pro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9), 1177-1192.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age publications.
- Hong, S., Khim, J. S., Ryu, J., Kang, S.-G., Shim, W. J., & Yim, U. H. (2014).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s and recoveries after five years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Taean, Korea. *Ocean & Coastal Management*, 102, 522-532.
- Hou, J., Zhang, C., Zhao, F., & Guo, H. (2023). Underlying mechanism to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in collective donation action intentions: Does emotional reactions and perceived responsibilit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4(3), 552-572.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2), 225-248.
- Ishii, K., & Eisen, C. (2018).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discounting: the mediating role of harmony-seeking. *Frontiers in Psychology*, 9, 1426.
- Ito, M., Saeki, D., & Green, L. (2011). Sharing, discounting, and selfishness: A Japanese-American comparison. *The Psychological Record*, 61(1), 59-75.
- Iyengar, S. (1990).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The case of poverty. *Political Behavior*, 12(1), 19-40.
- Jung, Y. D., & Sung, S. Y. (2012). The public's declining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Meiji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1(1), 36-48.
- Kimmelmeier, M., Jambor, E. E., & Letner, J. (2006). Individualism and good works: Cultural variation in giving and volunteering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3), 327-344.
- Kim, D. Y. (2017). Vicious circle of public conflicts, conflict behaviors, and public trust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2(3), 53-81.
- Kim, S., Jin, Y., & Reber, B. H. (2020). Assessing an organizational crisis at the construal level: how psychological distance impacts publics' crisis responses.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24(4), 319-337.
- Kogut, T., Ritov, I., Rubaltelli, E., & Liberman, N. (2018). How far is the suffering? The role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victims' identifiability in donation decisio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3(5), 458-466.
- Kwon, O. Y. (2011). Does culture matter for

-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163-182.
- Lee, H.-C., & McNulty, M. P. (2003). *Korea's economic crisis and cultural transition toward individualism.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71-128.
- Lee, S., Winterich, K. P., & Ross Jr, W. T. (2014). I'm moral, but I won't help you: The distinct roles of empathy and justice in dona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3), 678-696.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oorman, R. H., & Blakely, G. L. (1995). Individualism collectivism as an individual difference predictor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6(2), 127-142.
- Nijs, T., Martinovic, B., & Verkuyten, M. (2024). The two routes of collective psychological ownership: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xplain intentions to exclude outsiders and engage in stewardship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0(2), 270-284.
- OECD. (2024).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Korea country note*. OECD.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rvey-on-drivers-of-trust-in-public-institutions-2024-results-country-notes\\_a8004759-en/korea\\_ab1a95c7-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survey-on-drivers-of-trust-in-public-institutions-2024-results-country-notes_a8004759-en/korea_ab1a95c7-en.html)
- Penner, L. A., Dovidio, J. F., Piliavin, J. A., & Schroeder, D. A. (2005). Prosocial Behavior: Multileve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65-39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eed, A., Aquino, K., & Levy, E. (2007). Moral identity and judgments of charitable behaviors. *Journal of Marketing*, 71(1), 178-193.
- Reed, A., & Aquino, K. F. (2003). Moral identity and the expanding circle of moral regard toward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270-1268.
- Rhee, E., Uleman, J. S., & Lee, H. K. (1996). Variations in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by ingroup and cultur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1037-1054.
- Siemens, J. C., Raymond, M. A., Choi, Y., & Choi, J. (2020). The influence of message appeal, social norms and donation social context on charitable giving: Investigating the role of cultural tightness-loosenes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28(2), 187-195.
- Strombach, T., Jin, J., Weber, B., Kenning, P., Shen, Q., Ma, Q., & Kalenscher, T. (2014). Charity begins at home: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discounting and generosity.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7(3), 235-245.
- Temmann, L. J., Wiedicke, A., Schaller, S., Scherr, S., & Reifegerste, D. (2021). A systematic review of responsibility frames and their effects in the health context.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6(12), 828-838.

- Torelli, C. J., & Shavitt, S. (2010). Culture and concepts of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4), 703-723.
- Triandis, H. C. (200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6), 907-924.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323-338.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 Urbonavicius, S., Adomaviciute, K., Urbuteyte, I., & Cherian, J. (2019). Donation to charity and purchase of cause related products: The influence of existential guilt and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8*(2), 89-96.
- White, K. M., Poulsen, B. E., & Hyde, M. K. (2017). Identity and personality influences on donating money, time, and blood.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6*(2), 372-394.
- Winterich, K. P., & Zhang, Y. (2014). Accepting inequality deters responsibility: How power distance decreases charitable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2), 274-293.
- Wong, N. Y., & Bagozzi, R. P. (2005). Emotional intensity as a function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cultural orient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4), 533-542.
- 논문 투고일 : 2026. 01. 26  
1 차 심사일 : 2026. 02. 11  
게재 확정일 : 2026. 02. 15

## Resilient Koreans in Crisis: Family Expansionism and Donation Intention in Social Crisis

**Jungjae Im**

University of Florida

**Jaeyee Kim**

University at Buffalo

**Seheon Kim**

Korea University

**Taekyun Hur**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underlying Koreans' prosocial behavior in social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family expansionism, a cultural characteristic perceiving social structures through a family system, influence donation intention in social crisis. A total of 100 South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and were exposed to two social crisis scenarios described in an individual-centered narrative format. In each context, participants reported their crisis perception, personal responsibility perception, national responsibility perception, and donation intention. Across both crisis contexts, higher family expansionism was associated with perceiving social crisis at a national level and stronger donation intentions. Mediation analyses reveal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rough crisis perception. Moreover, personal responsibility percep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sequential pathway from family expansionism to crisis perception and donation intention. Although mean differences emerged between the two crisis contexts, the structural pattern of the psychological mechanism was consistent across context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highlighted the role and influence of family expansionism on the prosocial behavior of Koreans.

*Key words* : donation intention, family expansionism, crisis perception, personal responsibility perception, national responsibility perception